

임의성의 통증클리닉 척추관협착증

통증클리닉에서 진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환자가 아마도 요통환자일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퇴행성 척추관협착증이 가장 흔한 진단명입니다.

척추관협착증(이하 협착증)은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는 증상으로 허리디스크와 증상이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나 허리디스크는 앉거나 허리를 구부리면 통증이 심해지지만, 협착증은 앉아 있으면 통증이 덜했다가 걷기 시작하면 점점 다리가 아파서 쉬었다가 다시 걸어가는 보행장애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걸을 때 다리와 엉덩이 부위가 심하게 당기고 저리면서 통증이 나타나 다리를 절며 걷는 경우도 있고 어떤 환자는 다리가 시리다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잠시 앉아서 쉬어가면 다시 보행이 가능하나 점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짧아져서 결국 병원에 오게 됩니다. 이런 증상을 간헐적 파행이라고 하는데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는 하지 동맥 폐쇄성 말초혈행 장애를 꼭 감별해야 합니다. 혈행장애의 경우 증상이 환자의 자세와 무관하고 다리의 시린감과 냉감이 특징이며 족배부나 발목에서 맥박이 약해지는 게 특징입니다.

협착증의 진단은 환자의 증상과 이학적 검사만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집니다. 허리디스크의 경우에는 SLR test(바로 누워서 다리를 들어올리는 검사)가 양성인 반면 협착증에서는 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순 방사선 사진상 추체 부근의 골주형성과 추간공의 협소, 면절관의 퇴행성 변화와 경화 등을 보이면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CT나 MRI는 진단을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며 질환의 중증도를 판별하는데 도움이 되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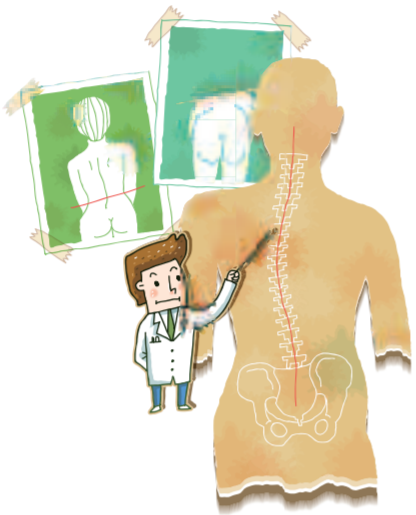
해부학적으로 척추관이란 목에서부터 꼬리뼈까지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척추관협착증이란 말 그대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져서 신경을 누르는 병입니다.

허리디스크가 찢어지고 같은 디스크물질이 신경을 누르는데 반하여, 협착증은 나이가 들면서 척추관 주위의 인대나 후관절의 비대 및 뼈의 골극이 자라나와 척추관을 좁게하여 신경을 누르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디스크의 경우에는 전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협착증의 경우에는 주로 60대 이상에서 흔히 발병합니다.

협착증의 치료는 크게 보존적 치료, 비수술적 주사치료, 수술로 나뉘어집니다. 보존적 치료는 안정, 약물치료,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으로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나 다른 치료의 보조요법으로 시행합니다. 약물로는 소염진통제, 근육이완제, 신경안정제, 척추로 가는 혈관확장제 등을 사용하며 물리치료는 열치료, 초음파, 레이저치료, 도수치료 등을 시행합니다.

견인치료는 허리디스크와 달리 효과가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수술적 주사치료는 증상이 심하거나 보존적 요법에 호전되지 않고 수술하기 어려운 경우에 시행합니다. 주사치료는 크게 협착된 척추관으로 인해 생긴 신경의 염증을 감소시키는 방법과 척추관 주위의 인대를 보충하고 장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주사로 구분됩니다. 전자의 경우 급성기에 효과적이며 경막외강 신경치료, 후지내측지주, 선택적 신경근 치료 등이 유용하며 직접적으로 통증을 일으키는 염증물질을 제거하고 신경의 부종을 가라앉혀 통증을 감소시켜줍니다.

협착증은 퇴행성질환으로 혈압이나 당뇨처럼 관리하는 질병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에서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환자 스스로도 반듯한 자세, 누워서 무릎 가슴에 교대로 닿기, 누워서 교대로 다리펴서 들기 등의 척추 주위 근육운동을 꾸준히 해주고 유산소 운동으로는 자전거 타기를 하면 증상도 경감시켜 주고 질환의 진행도 더디게 할 수 있습니다.



임의성 마취통증의학과 원장 02-2646-7582

중소 신규 취업자에게 최신행 SM3 전기차 지원

부산시, 만 21~34세 청년 대상 '부산청춘드림카 지원사업' 1차 모집 본격 시행

부산시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서부산권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산단 내 신규 취업하는 만 21세부터 만 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기차를 빌려주는 '2018년도 부산청춘드림카 지원사업' 1차 모집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행정안전부와 일자리위원회에서 공동 주관한 '정부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사업성과 전국적 파급효과부문에서 큰 점수를 얻어 최우수상을 수상, 인센티브로 1억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부산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지난 2월 27일 르노삼성, BNK캐피탈과 함께 '부산지역 청년고용 촉진 및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렌트 차량은 이번에 새로 출시된 SM3 전기차로 BNK캐피탈 장기렌터카 사업부에서 3년 약정으로 렌트하는 것으로 3년 경과 후 반납하거나 청년이 나머지 잔액(700만~800만원으로 추정)으로 인수할 수 있으며 여력이 되지 않으면 반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부



산권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신규취업자로서 부산시 거주(전일일) 등록자로 당해 연도 기준 만 21세부터 만 34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세부 지원자격은 ▲공고일 기준 운전면허 취득 1년 이상인 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취업한 자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150% 미만에 해당하는 자 등이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만 26세를 기준으로 종합보험료 포함해서 렌트비가 48만5000원인데 그중 부산시가 35만원을 지원하고 청년이 13만5000원을 자기 부담하고 전기료 2만원 추가로 부담하면 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년수당", "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을 위한 여러 정책이 있지만 청춘드림카 정책이 효과가 가장 확실하고 무엇보다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전기차로 인한 환경 문제 해소는 당연한 것이고 그간 서부산권 산업단지 중소기업들은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청년 구직자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서부산권 지역에 도시철도 등 교통인프라가 구축되는 2023년까지라도 본 사업의 지원으로 인해 지역 중소기업의 극심한 청년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1석 3조 정책으로 전국 최초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진다"고 말했다.

윤재현 기자 mahler@

공정거래 바로세우기

A업체가 상담을 왔다. 내용은 B회사로부터 전기공사 하도급을 맡았는데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공사가 3개월 지연되었고 그에 따라서 자기가 맡은 공사의 납기 내 공사마무리 시간이 절대로 부족했다. 더구나 천장공사 업체가 서둘러 마감하는 바람에 전기공사를 하

마치라는 B회사 현장소장의 말을 듣고 마무리했다. 공사가 5% 정도 남은 상태에서 공사 타절을 하고 협상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더 마감하고 정산을 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인지도 문제였다. 그럴 때는 중간 타절을 하면 더 복잡해지고 상대방은 다른 회사를 투입해서 잔여 공사를 마감하기 때문에 내 입지가 좁아진다. 그래서 공사를 마무리하는 게 좋다. 대신에 마감 때까지 그간의 추

다. 전문공사업체나 전기공사의 하도급 문제의 90% 이상이 정산문제이다. 즉 하도급 건설공사의 핵심이 정산이다. 정산문제가 마지막에 있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자료준비를 해야 한다. 계약서와 달리 현장공사가 천 원짜리 하나라도 더 투입되면 그에 대한 서류를 확보해야 한다. 선행공사가 하루라도 늦어지면 그것도 기록해두어야 한다. 상대방은 싫어한다. 뭐가 그렇게 간간하게 하느냐고 한다. 어쩌면 그런 업체는 협력사로 운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간 많은 사례에서 보니 허술한 자가 먹었다. 앞잡아 보이면 결국 뜯긴다. 한 건의 공사에 수십억 원이 물리는 사고는 결국 이렇게 허술하게 현장의 공무원이 되어서 그렇다. 내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누구를 탓할 게 없다. 결국, 하도급 공사의 핵심은 공무 능력에 있는 듯하다.



이경만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02-562-6578

선행공사 지연에 따른 정산의 문제 대응요령

기 위해서는 다시 천장 일부를 뜯고 재시공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이렇게 공사가 뒤죽박죽되면서 비용이 8억 원이 나더 투입되었다. 특히 납기 내 공사를 마무리하느라 마지막 보름간은 평소보다 인력을 세배나 더 투입하고, 주말과 야간작업까지 강행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손실이 뻔하니 중간에 납기연장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나중에 정산해줄 테니 일단 공사를 먼저

가공사가 일어나게 된 배경 관련 자료를 잘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공사가 끝나고 정산의 다름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그나마 공사장 출입할 때 자료를 하나라도 얻기 쉬우며 마감 공사를 하기 전에 현장 사진을 찍기도 쉽다. 상대방과 통화도 안 되고, 이메일 등의 피드백도 안 된다. 인테리어 공사까지 마치면 현장 사진을 얻기는 더욱 어려워진



전설 자재 전문 기업 (주)만희기전

wieland 방수용 원형 커넥터

RST 시리즈 2,3,4,5-pole, 250/400V, 8,16,25,32,50A



JOKARI 전선탄피공구

작업성이 용이 하고, 신속하며, 안전하게 케이블 커팅, 스트리핑 처리를 할 수 있는 스마트한 제품입니다.



WAGO 꽃음형 전선 커넥터



- 전선 0.14 - 4 mm²
- 단선 0.2 - 4 mm²
- 450 V/4 kV/32A



- 단선 0.5 - 2.5mm²
- 450V/4 kV/24A

서지보호기, 피뢰, 접지, 전기안전용품



Safety Equipment



(주)만희기전

경기도 과천시 공말로 20 (과천동) TEL:02-2194-3300 FAX: 02-2194-3398 E-Mail : admin@mec.co.kr